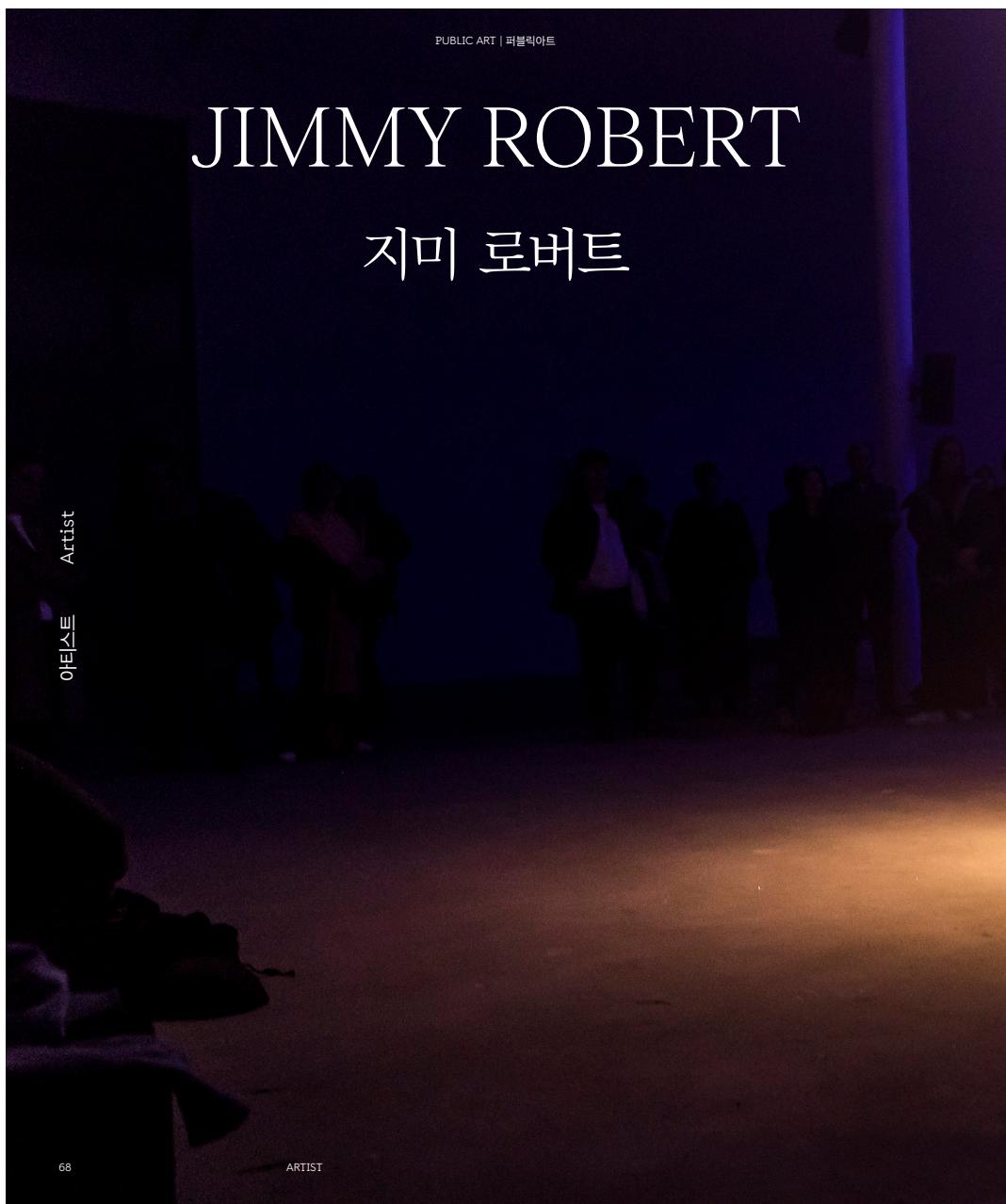


Tanya Leighton

PUBLIC ART



Public Art, December 2025

Kurfürstenstraße 156, 10785 Berlin  
+49 (0)30 21 972 220, [info@tanyaleighton.com](mailto:info@tanyaleighton.com), [www.tanyaleighton.com](http://www.tanyaleighton.com)

# Tanya Leighton



# Tanya Leighton



Kurfürstenstraße 156, 10785 Berlin  
+49 (0)30 21 972 220, [info@tanyaleighton.com](mailto:info@tanyaleighton.com), [www.tanyaleighton.com](http://www.tanyaleighton.com)

# Tanya Leighton

DECEMBER 2025



<Imitation of Lives> at Performa 17, New Canaan November 3 - 5, 2017 Performance at The Glass House, New Canaan in connection with the exhibition <Imitation of Lives> at The Glass House, New Canaan and Tanya Leighton, Berlin and Los Angeles  
Courtesy of the artist; Performa and The Glass House, New Canaan and Tanya Leighton, Berlin and Los Angeles  
Photo: Michael Biundo / Performa, ©MC Kay, Quentin Suckey, and Jimmy Robert / Pictures: ©T. McKenzie, ©nu/De Drukker Amstel, 2017

이미지는 촉각이 가진 것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다. 예술에서 재현이 본질적으로 실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로버트는 신체 자체를, 움직이는 이미지와 정지된 이미지 사이의 전환점에 위치시킨다. 그가 다루는 오브제, 이미지, 텍스트, 퍼포먼스는 각자의 언어로 번역되고 실패하며 자유롭게 범주 안팎을 넘나든다.

대학교 재학 시절 작가는 프랑스 문학가 마르그리트 뒤라스(Marguerite Duras)의 작품에 매료되 연구하며 책(과 책장)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키웠다. 이는 텍스트를 포함한 종이라는 물성을 지닌 오브제가 무언가를 투사 가능 한 또 하나의 독립적 표현 매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Technique et Sentiment’, ‘Untitled’ 연작 등에서 볼 수 있듯 종이는 그의 손에 의해 3차원성을 확보한다. 확대와 스캔을 거쳐 출력한 클라주 이미지는 벽에 느슨하게 걸리거나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돼 공간적으로 확장된다. 구겨지고 접히고 찢어지며 물질성을 갖는 2차원의 종이(이미지)가 장소와의 조우로 몸(레이어)을 갖게 되는 식이다.

이처럼 부재로 현존을 재인식케 하는 방식은 다른 작품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종이와 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비디오 작업 <Parametres>(2012)에서 로버트는 기하학적 도면이 그려진 A4 용지들을 차기 신체에 대고 프랑스어로 텍스트를 말한다. 불완전해진 종이의 공백을 본인 얼굴 부분으로 채우며 얼굴을 감추고 표현을 제거한다. 그렇게 감각들을 스스로 가리고 얹합함으로써 그 자리를 텍스트와 움직임이 메운다.

로버트의 이러한 미학은 <Descendances du nu>(2016)에서 가장 명료하게 수렴한다.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Nude Descending a Staircase, No.2>(1912)를 출발점으로 삼은 이 퍼포먼스에서 로버트는 계단 모양의 헤드피스를 쓰고 십여 분간 움직인다. 프랑스 딸므의 한 옛 시나고그에서 처음 선보인 이 작업은 흑인 계이 남성의 몸을 종교적 공간에 들어오는 것의 의미를 묻는다. 동시에 뒤샹이라는 가부장적 인물과 그를 전유한 세리레빈(Sherrie Levin), 일레인 스타티번트(Elaine Sturtevant), 루이스 로울러(Louise Lawler) 같은 여성 작가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탐색한다.

이 같은 참조는 인용과 구분되어 로버트가 영향받은 예술가들의 유산을 나누는 차원에서 활용된다. 관능적이면서도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현현하는 움직임 뒤에는 벌거벗는다는 것, 예술사 속 흑인 신체, 여성과 유색인종의 과소 재현이라는 묵직한 질문들이 자리한다. 이처럼 종이와 헤드피스로 가려진 신체 일부는 단편적으로는 개별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바로 그 이면성은 보편적 신체의 조건을 사유케 하는 단서가 된다.

이탈리아 나폴리 토마스 데인 갤러리(Thomas Dane Gallery)에서 열린 <Frammenti>(2022)는 고전 조각에서의 흑인 신체와 재현에 관한 성찰을 연다. 로버트는 백인 제국주의의 미학이 고대 그리스 조각이 흰색으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에서 생성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색성이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National Archaeological

# Tanya Leighton

PUBLIC ART | 퍼블릭아트

Museum of Naples)에 자리한 여전히 색이 남아 있는 조각상들과 입술, 손톱이 붉은색을 띠는 조각 잔해들을 목격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그는 과거의 기억과 기록으로부터 파생된 이미지와 조각, 더 나아가 인류가 기술해 나가는 역사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추상적으로 해체하고 재조명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로버트의 작업에서 공간은 물리적 배경일 뿐 아니라 공동 참여자다. 미국 건축가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의 글라스 하우스(The Glass House)에서 공연된 <Imitation of Lives>(2017)는 공간의 정치성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작가와 두 명의 흑인 남성 퍼포머들은 처음엔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다가 점차 후드를 쓴 침입자로 변모하며 건물 주변을 배회한다. 유리로 이루어진 투명한 공간에서 로버트는 존슨의 연인이었던 재즈 가수 지미 다니엘스(Jimmie Daniels)에 대한 텍스트를 낭독한다. 성적 지향·인종·여사가 접 자체의 서사와 충돌하며, 몸이 공간의 균열을 드러내는 방식 혹은 공간이 몸의 존재 조건을 재편하는 방식이 서로 얹혀 새로운 레이어를 형성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공간의 특수성과 몸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그곳을 지키는 주체들과의 직간접적인 협업으로 확장된다. 베를린 KW 현대미술 연구소(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에서 진행한 <Joie noire>(2019)는 고인이 된 이안 화이트(Ian Whyte)에게 바치는 현장작이다. 이 퍼포먼스는 클럽 문화, 젠더, 에이즈 이후의 역사, 흑인 퍼포머의 몸짓이 한 공간을 순환하며 허밍처럼 겹치는 구조를 취한다. 관객은 움직임을 따라가며 자신의 시선이 몸의 서사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자각하게 된다. 시선과 시간이 공연의

일부로 작동하는 지점을 제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감상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일종의 수행성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창작의 원천을 만든다. 또한 단순히 몸의 움직임을 읽는 것을 넘어 관찰하고 소화하며 주체적으로 이해하게끔 의도하고 해석과 반응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로버트에게 관객은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의 생성 원리이며 작업은 그와 함께 조율되어 완성된다.

런던 PEER 갤러리에서 공개된 커미션 작업 <European Portraits>(2017) 역시 로버트의 이러한 의도를 함축한다. 당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투표에서 일어난 문제에 관한 응답의 하나로 제작된 퍼포먼스는 갤러리의 큰 유리창을 매개로 거리의 행인들과 작가의 우연적이고 비자발적인 교차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경계이자 접촉면인 투명한 창문은 안과 밖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서로를 반영하며 사건을 생성한다. 이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정치적 결정을 통해 그어 놓은 선을 어떻게 매일의 몸짓이 다시 흐리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이때 퍼포먼스는 결국 삶의 조건을 실험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적 모델이 된다.

퍼포먼스를 단지 일회적 사건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로버트의 퍼포먼스는 사진, 영상, 설치로 변환되며 전시 공간에서 또 다른 생명을 얻는다. 이는 '퍼포먼스 아트가 기록과 재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해묵은 물음에 대한 그만의 응답이기도 하다. 움직이는 몸은 정지된 이미지가 되고 그 이미지는 다시 공간 속에서 물질성을 획득하며 다른 몸이 된다. 몸이 유일한 상수인 이 순환 안에서 원본과 복제, 현전과 부재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것이다.



72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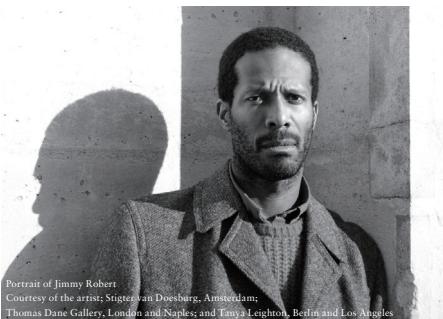
# Tanya Leighton

DECEMBER 2025



작가가 위치한 교차점 - 흑인·케이·이민자·예술가라는 정체성의 중첩 - 은 그의 작업을 해석하는 중요한 축이지만 로버트는 결코 자신을 단일한 범주로 환원하지 않는다. 로버트의 몸은 특정한 정체성을 표상하기보다 그 것의 구조가 얼마나 유동적이며 맥락에 따라 어떻게 재배치되는지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가 수행하는 움직임은 자기 서사의 재현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몸에 부과하는 규범과 투사들을 일시적으로 벗기거나 새로운 틀로 재배열하는 시도다.

로버트의 작업이 남기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특수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보편성을 향해 열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몸은 어떻게 타자의 몸과 접촉하며 어떠한 공동의 언어를 발명할 수 있는가. 예술은 그 경계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는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작업은 이미지와 신체, 실패와 성취 사이의 불안정한 틈에 우리를 세워 놓는다. 그 틈에서 우리는 몸이라는 가장 익숙한 조건이 얼마나 다층 적인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낯설게 다시 읽힐 수 있는지를 발견한다. 로버트의 몸이 남기는 여운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



Portrait of Jimmy Robert  
Courtesy of the artist; Stigter van Doesburg, Amsterdam;  
Thomas Dane Gallery, London and Naples; and Tanya Leighton, Berlin and Los Angeles

작가 지미 로버트는 1975년 프랑스 과들루프에서 태어났다.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와 암스테르담 라이스아카데미(Rijksakademie)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정의되어 온, 혹은 사회로부터 외면받아 온 신체의 언어를 다양한 장르의 작업으로 풀어내 국제적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 <Eclipsed>, <The Erotics of Passage>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의 작품은 헌터리안(The Hunterian), 헵워스 웨이크필드(Hepworth Wakefield), 스테델릭 미술관(Stedelijk Museum) 등 전 세계 예술기관과 공공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1 <Old masters> 2019 Performance view of  
<Evening of Performances> The Roberts  
Institute of Art, London, 2019  
Courtesy of the artist; The Roberts Institute of  
Art, London; Stigter van Doesburg, Amsterdam;  
Thomas Dane Gallery, London and Naples; and  
Tanya Leighton, Berlin and Los Angeles  
Photo: Mike Massaro Performer: Jimmy Robert

2 Installation view of 'Frammenti' June 14 -  
August 5, 2022 Thomas Dane Gallery, Naples  
Courtesy of the artist; Thomas Dane Gallery,  
London and Naples; Stigter van Doesburg,  
Amsterdam and Tanya Leighton, Berlin and  
Los Angeles  
Photo: Roberto Salomone

73

아티스트

# Tanya Leighton



PUBLIC ART | 퍼블릭아트

## The Eclipse of the Body

· Article by Kim Seongyeon ·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Tanya Leighton

Paradoxically, the act of concealing something actually reveals its outline most clearly. The concealed and what conceals take form at the boundary of light and darkness, and this paradoxical moment is when Jimmy Robert's art world is also materialized. His work that spans performance,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video explores paradoxical time and space, where things gain visibility as the body traverses media and spaces while also becoming hidden. Like the sun covered and revealed by the moon, Robert's body constantly wanes and waxes before our eyes. Beauty and vulnerability. Intimacy and distance. Magnanimity and exclusion. The individual and society. These all appear as though they exist in different dimensions, but it is also clear that they can exist in sync; it is this gap between languages and bodies, as well as moments that cannot be translated, that Robert captures through movement.

Images cannot fully reflect what is conveyed through the senses.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failure of recreation or representation in art. Robert admits and accepts this, placing the body itself right at the turning point between moving and still images. His objects, images, text, and performances freely cross boundaries as they are translated into their own languages and fail. Among them, Robert's collage works created by enlarging, scanning, and printing paper extend into space as they are loosely hung or fixed to the wall with masking tape. The two-dimensional paper (image)—which demonstrates its materiality as it is crumpled, folded, and ripped—gains three-dimensionality (layer) when it encounters space.

Robert's work is also unique in that he does not leave his performances as one-off events. As his performances transform

# Tanya Leighton

